

경기도는 다양성의 보고(寶庫)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농산어촌(農山漁村)을 비롯하여 최첨단의 도시 등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남녀노소,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아동과 여성, 노인과 외국인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살고 있으며, 31개 시·군간의 지역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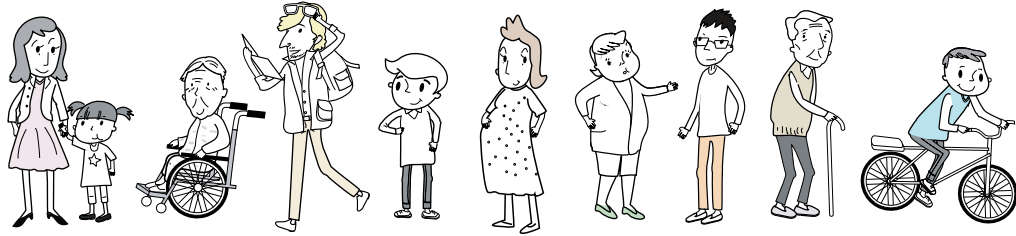
다양성의 보고(寶庫) 경기도는 각기 다른 지역 특성을 존중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동과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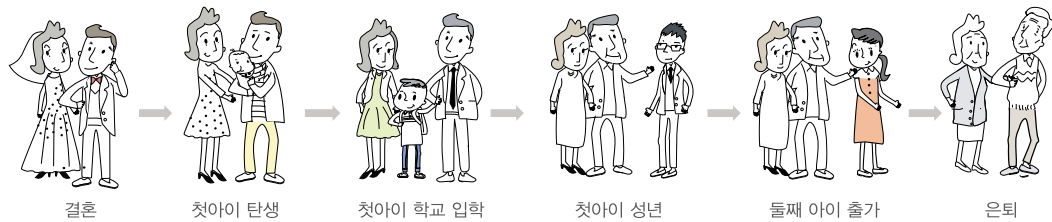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키가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왼손잡이인 사람, 오른손잡이인 사람, 여행용 가방과 관광안내책자를 든 외국인, 휠체어를 탄 사람 등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신체, 욕구, 가족주기별 상황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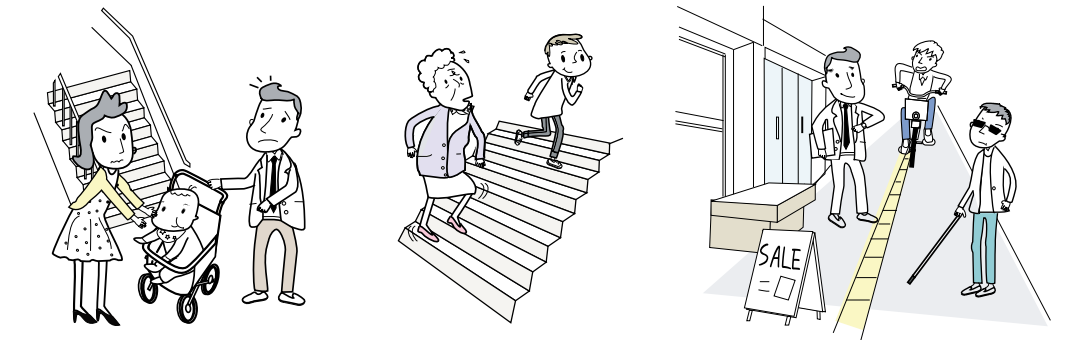


이렇듯 사람의 특성은 단순히 연령, 성별, 신체능력 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양성은 시간(Time)과 상황(Situation)의 다양한 상호관계로 구성된 복잡한 조합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집, 놀이터, 상가, 상점, 카페, 식당, 시장, 학교, 회사, 은행, 병원, 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터미널, 공원 등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공간은 유모차를 밀고 가거나 큰 가방이나 짐을 들고 갈 때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어떤 신체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짐을 들거나 유모차를 끌거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등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알기 쉽고 안전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부담감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며,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과 능력에 관계 없이 편리한 제품, 건축, 공간,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 영역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과 조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정신입니다.
건축, 환경,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 복지, 교육, 정보 등의 사회적 환경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사회환경 만들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만든 환경은

안전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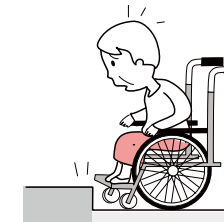
알기 쉽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디자인은 다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을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기술적 측면의
무장애디자인에서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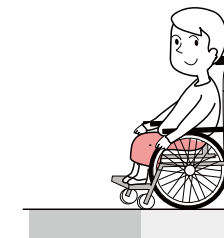
[베리어프리 이전단계]

건물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어
유모차, 휠체어 등을 밀고 가기 어렵습니다.



[베리어프리 단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단계]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건물 주출입구의 진입로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다양함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로 실천하여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합니다.

다양함을 가진 우리 모두를 차이가 차별이 아닌 개성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우르고,
세심하게 배려하여 서로 어우러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합니다.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살기 좋고 매력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가꾸고자 합니다.



‘차별 없는 접근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경기도민이나 경기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삶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매력있는 사회를 디자인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은 ‘차별 없는 접근성’을 기본으로 다음의 7가지 특성으로 설명됩니다.

하나, 매력 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 문화, 지역, 개성 등이 달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공감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름다움은 주변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 편리합니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특성이나 주변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셋, 쾌적합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빛, 열, 공기, 소리 등 환경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생리적으로 쾌적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넷, 환경과 함께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용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마음을 자연으로 확대하여 환경문제를 앞장서서 인식하고 실천합니다. 환경에 대한 배려는 곧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안전합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공환경은 예측 가능한 상황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과 사건의 발생까지도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대처방안과 이후의 안전까지도 확보합니다.

여섯, 선택 가능합니다

나이, 성, 신체건강, 인종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곱, 지역특색과 조화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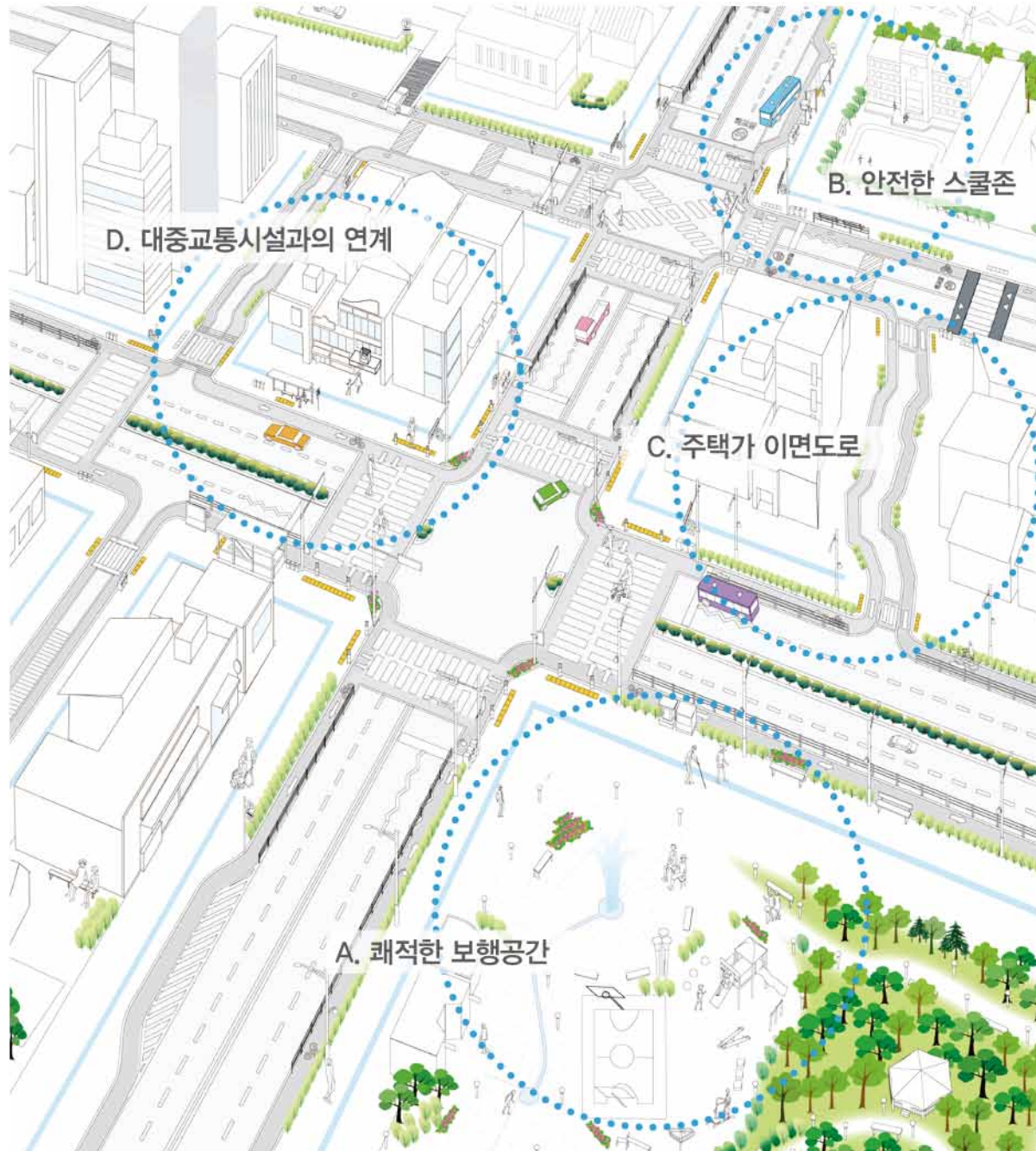
지역의 이미지와 특색을 결정짓는 지역문화와 역사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개성과 다양성을 가지도록 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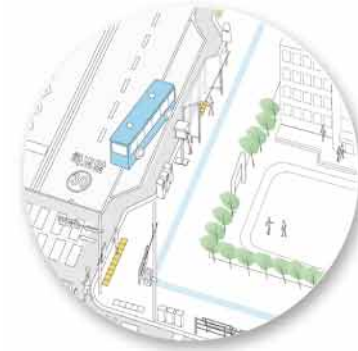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A. 쾌적한 보행공간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벤치, 공중전화 등의 가로시설물과 공원, 광장 등의 휴식공간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단차나 높낮이 변화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를 설치합니다.



B. 안전한 스쿨존

학생들이 단차 없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스크램블 교차로 등을 설치하고, 키 작은 아동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교차로 주변에는 낮은 식재와 개방감이 있는 보도펜스 설치합니다.



C. 주택가 이면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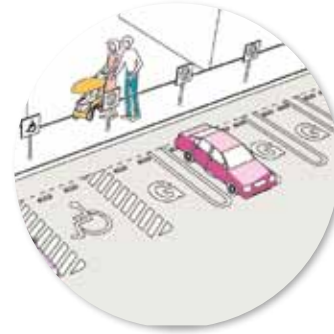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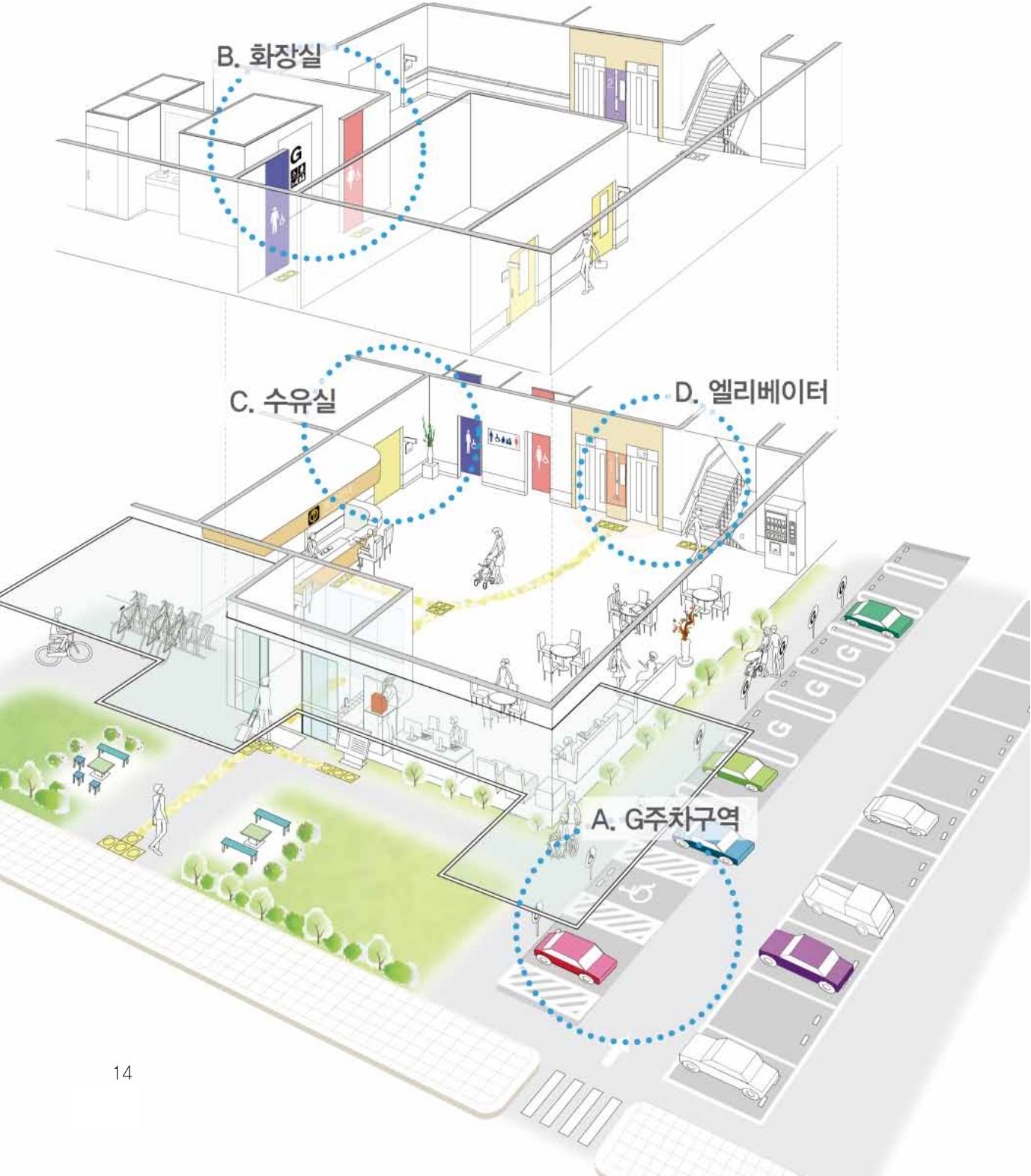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과속방지턱, 지그재그형 도로 등의 속도저감시설을 두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걷기 쉬운 보도를 조성합니다.



D.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버스승차대, 택시 승차대 등을 설치하고, 지하철 등의 출입구는 건축물과 연계 설치하여 가로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합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쾌적한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A. G주차구역

주출입구 근처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G주차구역을 설치합니다.



B. G화장실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G화장실을 설치합니다.



C. 수유실

영유아의 수유나 기저귀를 갈아 입힐 수 있고, 임산부 등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수유실을 설치합니다. 이때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유를 주는 여성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D.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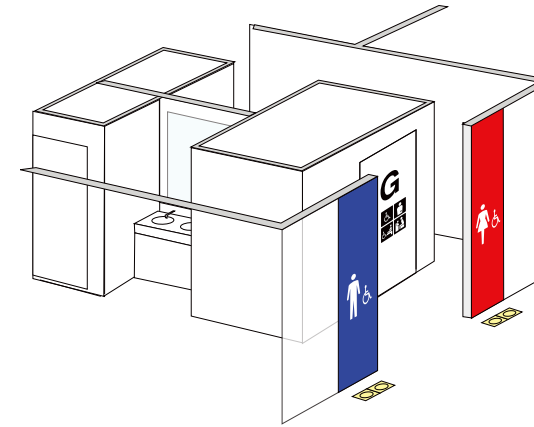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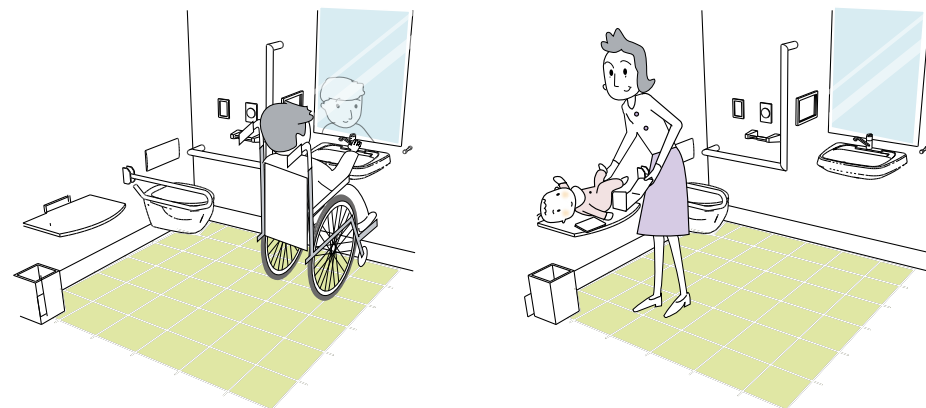
2층 이상의 건물에는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되,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이동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방안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G화장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큰 짐을 가진 사람, 임산부 등 다양한 상황의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들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G화장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 연령 특성상 표준화 된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들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만족감을 극대화 시키도록 한 화장의 모델입니다.



G화장실의 출입문은 가급적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명확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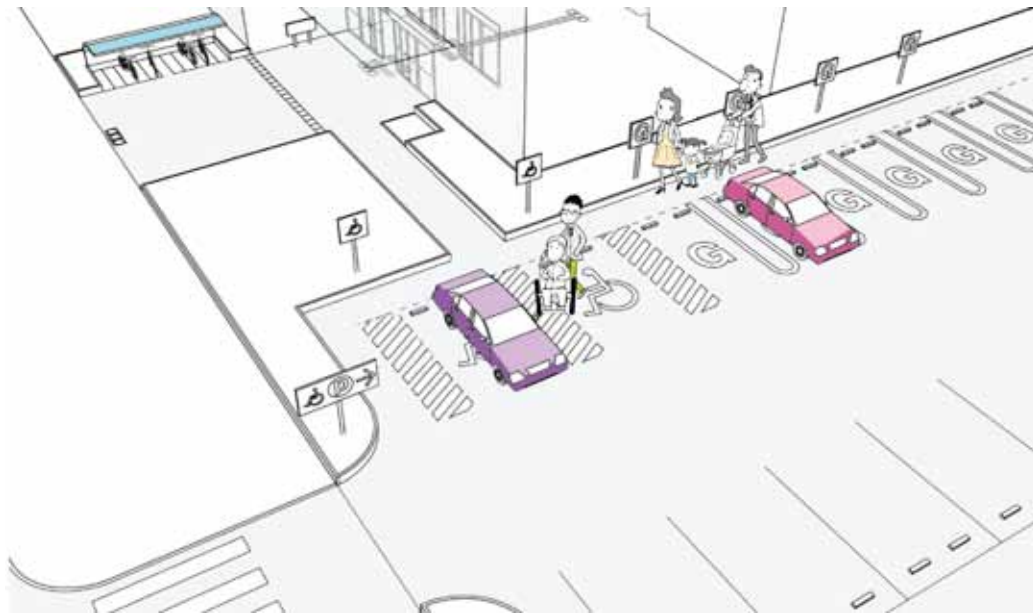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사인을 설치합니다.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접이식 간이침대, 기저귀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어린이용 대변기, 오스트메이트 등을 설치합니다.

경기도 G주차구역

유모차를 미는 여성, 짐을 든 사람, 나이 지긋하신 운전자 등을 배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주차구역은 도로에서도 쉽게 보이고 시야가 트인 장소에 배치하며, 임산부나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또는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차로 및 주차공간으로 설치합니다. 건물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도록 배려합니다.

G주차구역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유모차나 휠체어, 바퀴달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쉽도록 바닥에 단차를 없애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 안전통로를 확보합니다.

차로를 건너지 않고도 G주차구역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며,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로에 지붕을 설치합니다.



▲ 권장 : G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예

G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는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노인, 일시적 부상자가 사용 가능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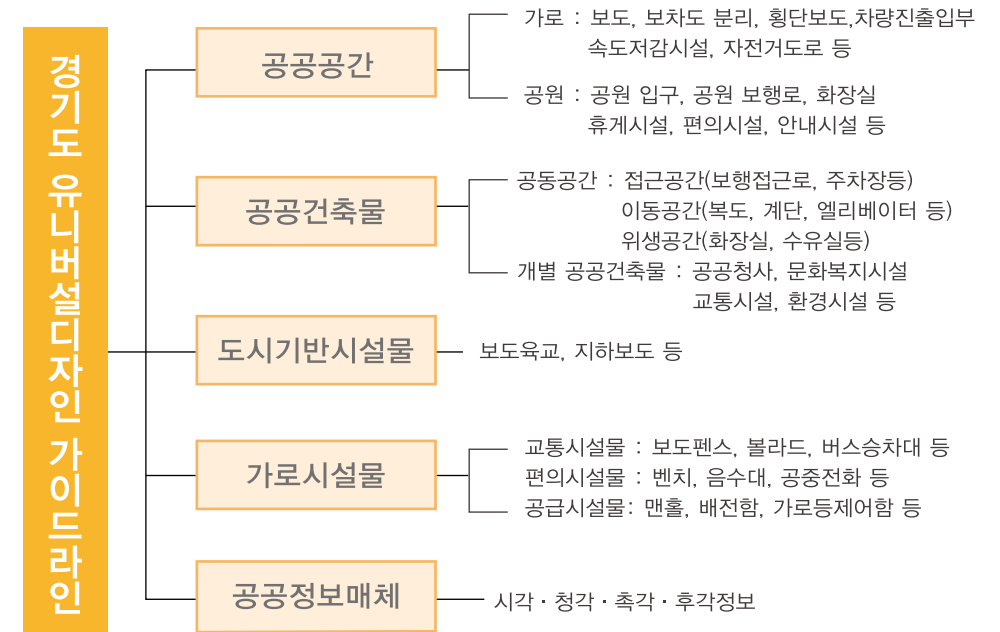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생활환경을 조성,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목표 및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호 연계되는 지침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기본지침

- 도로 및 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산부는 발밑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바닥면에 단차가 없으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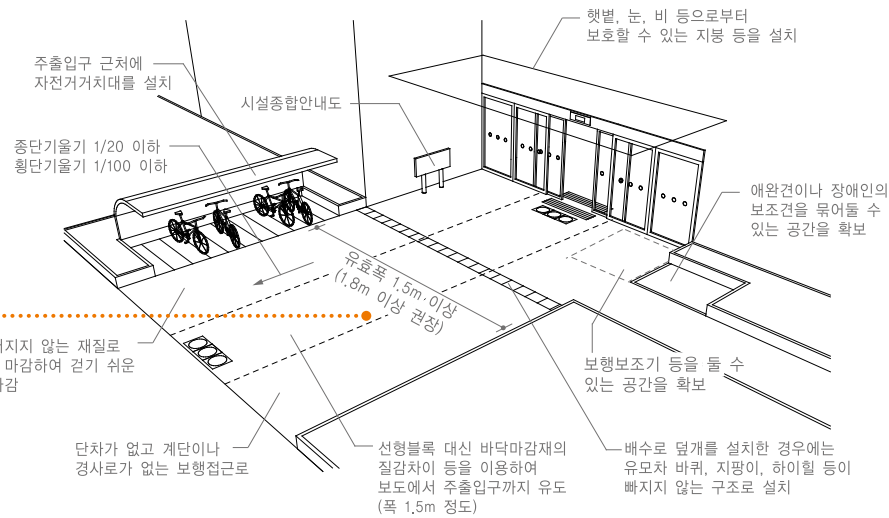
세부 항목명

이동통로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은 유모차 및 영유아 동반자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통행하고, 휠체어 등이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으로 한다.

법적근거 표기

- **적극반영** : **권장** 급행적 유모차가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하며,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2.3m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부내용의 이미지화

- **권장** 단차없이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로

적극 반영해야 될 내용의 '권장'표기

법적근거 및 내용을 각주로 표기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차별 없는 접근성'으로 누구라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걸을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으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철학과 기본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배려를 내세운 소외와 차별이 아닌 함께 하기 위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시작을, 환경디자인 전문가와 행정관계자,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존중과 배려의 사람 중심의 사회 창조를 위한 보다 발전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발행처 경기도
발행부서 디자인총괄추진단
연구, 기획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자문 건국대학교 맹형재 교수
발행일 2011.4

비매품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copyright(contents) GyeongGi-Do, All right reserved. 2011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